

Interview / 에너지관리공단 손학식 에너지효율관리실장

에너지관리공단, 소형 열병합발전 활성화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용, 발전차액 지원검토

■ 박정미 기자(psn0304@energycenter.co.kr)



지난 2000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한 소형 열병합시스템은 현재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국내에는 2004년 9월 현재 52개소 85기로 총 발전용량의 약 0.2%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보급 속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 270만kW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8조 7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의 제도와 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핵심창구다. 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손학식 에너지효율관리실장을 만났다.

● 현재 공단의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제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금지원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중 ESCO 투자사업으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연금리 2.25%,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열병합 설치에 따른 설치지원금으로 2천 만원한도에서 kW당 2만원, 설계지원금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kW당 1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해당지역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 열병합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난방용 요금보다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하는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경기, 전주, 익산, 군산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자금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법에 의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 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급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 270만kW(원자력발전기 3기에 해당)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약 8천억원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등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인적자원육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의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8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시스템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모아 현실 타당한 방향설정을 위해 에너지 수요 및 소비구조 분석, 공급기준, 중장기계획, 보급활성화 관련 정책, 제도개선 및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3, 4월 중 공청회를 추진해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지원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열 생산량 5Gcal/h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소형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소형 열병합발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2005년 이후 대기 환경보전법상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 사안이 보급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연료가 청정연료인 LNG로 에너지이용효율이 75~90%임을 감안해 유럽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술개발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열병합발전 기술개발은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 크기 등과 관련돼 있어 열병합발전 시장이 활성화되면 내수확대로 국산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기간이 워낙 길고 기술개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선 설비 및 기술을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기술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방안으로 인력양성센터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 절감량 산출기준 및 방법이 상이해 과열경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의 표준화로 설계, 설치에 대한 지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ESCO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소형열병합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ESCO들의 A/S 즉 사후서비스의 확실한 보증시스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